

광주시 승강기 불법점검 내부고발

광주지역에서 하루 4.4명이 승강기 고장으로 구조되고 있으나 안전 점검 단속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 업체가 불법으로 승강기 점검업무를 대행해 왔다는 내부고발이 제기됐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광주 지역 A 승강기 보수업체가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승강기 점검 자격자를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점검표를 작성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민원을 제기한 B씨는 A업체에서 지난해까지 근무했던 직원으로 "자격증이 없는 직원이 승강기 안전점검을 한 뒤 회사 직원이 아닌 자격증 소유자 이름으로 점검표를 기록했다"고 고발했다.

B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A업체의 불법 승강기 안전점검이 수백 건 이상에 달한다"며 증거로 직원 현황표와 승강기 점검표를 제출했다.

B씨는 "관련 규정상 자격증 소지자가 점검할 수 있는 승강기 수가 한정돼 있다보니 A업체가 직원 수가 부족한 외부인을 동원해 점검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업체 대표는 "민사소송 당사자인 B씨가 소송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민원을 접수한 것 같다"며 "승강기 점검은 정상적으로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A업체는 지난해에도 승강기 불법점검에 대한 내부고발이 제기돼 과태료 40만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역 승강기 고장이 매일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시소방본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승강기 고장으로 인한 119구조 출동은 5728건이고 구조인원은 8165명이다. 출동은 하루 평균 3.1건, 연평균 1000건이 넘고, 구조인원은 하루 4.4명, 연평균 1633명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가 시·구·공단 각 1명씩 3인 1조, 총 7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올해 5월8일부터 24일까지 17일간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 점검을 했으나 적발건 수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처분도 최근 5년간 과태료 12건, 과징금 2건 부과에 그쳐 119구조 출동건 수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

광주시의회 장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1)은 "승강기 고장이 매일 반복되면서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허술한 단속망에 불법점검이 이뤄질 수도 있는 만큼 관계기관의 협업행정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승강기시설 안

미자격자 점검 후 자격자 점검으로 허위기록 승강기 고장 연평균 1000건 · 구조인원 1633명 해당업체 대표 "승강기 점검 정상적이다" 반박

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책임 보험 가입 등 업무가 크게 증가했으



대학로, 차 없는 거리 '대학로 차 없는 거리'가 30년만에 시범운영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 차량이 통제돼 있다.

교육부 "조선대 총장 해임 부당"...법인, 행정소송 예고

강동완 조선대학교 총장 직위해제와 해임에 대해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가 "부당하다"며 각각 무효와 취소 결정을 내렸다.

법인 이사회는 "직위해제와 해임은 모두 적법한 조치"라며 행정소송을 예고하고 나섰다.

을 초 법원과 교육부가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린 바 있어 또 다시 '엇갈린 유권해석'이 나올 지 주목된다.

7일 조선대 등에 따르면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강 총장에 대한 법인 이사회의 2차 직위해제(3월1일)는 무효이고, 총장직 해임(3월28일)은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직위를 해제하거나 해임할만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결정 배경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강 총장은 "지난 6개월간 상식에 통하지 않는 부당한 처분에 대해 대학과 개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진군한 결과"라고 입장을 밝혔다.

강 총장은 그동안 "합법적 임기 보장과 학교의 장기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복귀하는데 "순리"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법인 이사회 측은 180도 다른 반응이다. "자율개선대학 탈락에 따른 정원 10% 감축과 재정 악화, 대학평판 하락과 신입생 경쟁력 하락, 학교 혼란, 리더십 상실"에 따른 직무수행 한계 등에 비춰볼 때 직위해제와 해임은 정당했다"는 입장이다.

조선대 법인 이사회는 지난 3월 28일 2019년도 제5차 정기이사회를 열고, 제적 이사 과반 출석에 출석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강 총장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했고 강 총장은 개교 이래 73년만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임된 첫 총장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법인 이사회는 "교육부 결정은 소청 심사 결정일 뿐이고, 학교 구성원들의 반대 의견과는 배치되는 것"이라며 "조만간 법률 검토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나 전달인원은 부족해 단속에 한계가 있다"며 "A업체에 대한 민원이 제기된 만큼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함께 현장 점검을 한 뒤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형태에 따라 과태료 부과나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서은홍 기자

이순신광장 계단 파손 일가족 7명 추락

여수 이순신광장 거북선 조형물 계단이 파손돼 관광객 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8일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44분께 여수시 이순신 광장에서 거북선 조형물로 오르는 목재 계단 일부가 파손됐다.

이 사고로 관광객 8명(일가족 추정) 중 7명이 3m 아래로 추락했다. 이 가운데 김모(59·여)씨가 중상을 입었고, 4명은 경상을 입었다.

나머지 2명은 넘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진을 찍는 과정에 갑자기 계단이 무너졌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계단 설계도 등을 확보해 시설물 안전 실태와 규정 준수 여부도 살펴볼 방침이다.

여수=송기홍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금 조직 전달 30대 영장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가로챈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금융사기조직에 전달한 사기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7일 전화금융사기로 가로챈 돈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사기)로 수거책 A(3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지난해 15일 광주 모 의류판매점 앞에서 인출책에게 건네받은 230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는 등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광주·서울·부산·강원 등지에서 7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가로챈 1억3600만 원을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전달한 돈의 1%를 수수료·성과금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구직 사이트에서 모 여성금융전문회사를 사칭한 조직의 '대출 업무 공고'를 보고 이 같은 일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신용등급을 향상해준다. 저리로 대출해준다"며 송금을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소재를 파악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용 등급 상승, 보증 보험 가입, 거래 실적, 저금리 전환 대출을 미끼로 한 금품 요구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웃집 현관에 불 지른 40대 입건

광주 북부경찰서는 7일 이웃집 현관에 불을 질렀다 미수에 그친 혐의(방화미수)로 최모(45)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최씨는 지난 5일 오후 8시에 광주 북구 한 아파트 A(68)씨의 집 현관문 앞에서 휴대용 버너와 선풍기를 이용해 불을 붙였으나 A씨가 곧바로 진화해 미수에 그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집 아래층에 사는 최씨는 평소 층간 소음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민취 상태에서 버너 위에 선풍기를 놓고 불을 켜지만, 연기 냄새를 맡은 A씨가 진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교생 무면허 운전 중 가로수 충돌 5명 사상

10대 고등학생이 면허 없이 렌터카를 몰다가 사고를 내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7일 영암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12분께 영암군 삼호읍 한 편도 3차선 도로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A(18)군이 몰던 승용차가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B(18)군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군 등 4명도 크고작은 부상을 입었으며, 이 중 1명은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차량에는 10대 또래 남학생 4명과 여학생 1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직후 A군은 잠시 현장을 떠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운전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렌터카를 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평소 알고 지내던 형인 C(20)씨가 렌터카 한 차량을 지난 6일 오후에 빌려 몰고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영암=조대호 기자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